

메카 의문

쿠란의 지리학 6 단원 비평

(부제: 쿠란의 지리학 참고 자료들에 대한 개론,
저자 댄 김슨, 인디펜던트 스칼라스 출판 2011년)

제러미 스미스

메카 의문

제러미 스미스 씀

저작권 © 제러미 스미스, 2011

본 책자는 저작권 보호하에 있지만, 저자 제러미 스미스를 인정한다면, 책자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재생하거나 보급해도 좋다. 허나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생하거나 교정하는 것은 안된다. 본 비평의 사본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웹사이트에 올려지고 있어, 장래에 독자들이 자신이 가진 사본들의 신빙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본 비평은 *쿠란의 지리학*의 저자 댄 김슨의 승인을 받았고, 내용이 그의 책 후반부에서 그가 제시하고자 했던 사실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ISBN: 978-0-9867144-4-3

본서는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 또 독자들이 *쿠란의 지리학*에 나오는 여러 논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만일 이 책을 원하면, 인디펜던트 스칼라스 출판사, www.indipress.ca 로 연락하시라.

서론

본 책자는 댄 김슨의 학문적 저서, *쿠란의 지리학*의 마지막 단원에 대한 비평이다. 원서는 470 페이지 분량이고 170 개가 넘는 도해, 연대표, 다수의 부록과 문헌 목록을 담고 있다. 인디펜던트 스칼라스 출판사 (<http://www.indipress.ca>) 에서 단행본 구입이 가능하다. 이 책은 원래 쿠란에 나오는 다양한 지리학적 참고 자료들을 아드 족 (the People of A' d), 타무드 족 (the People of Thamud), 미디안 (Median), 메디나 (Medina), 전-이슬람 아라비아의 단원별로 검토하고 있다. 본 비평에서는 이런 단원들은 다루지 않는다.

반면에, 본 비평은 이슬람의 거룩한 성 (the Holy City of Islam)에 초점을 둔 *쿠란의 지리학*의 마지막 단원을 다룬다. 바로 이 단원에서 김슨은 처음이자 원래 이슬람의 거룩한 성이 요르단의 페트라 성이었음과, 또한 무하메드가 사망하고 수 백년 후에 이락의 아바시드 (Abbasid) 집권자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마을을 거룩한 성으로 승인하였다는 자신의 발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이론이 믿을 수 없는 것같이 들린다. 하지만 김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고고학적, 문학적, 그리고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문적 연구를 위한 원서는 결코 못 읽을지 모르지만, 본 비평을 통해 독자들이 이 연구에 소개되고, 학계와 무슬렘 학자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쿠란의 지리학*의 저자 댄 김슨은 아라비아 반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전 생애를 보낸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이다. 그는 *나바티엔 사람들, 페트라 건축가 (The Nabataeans, Builders of Petra)* 를 포함하여 12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또한 여러 논문들과 기사들을 썼다. 저자는 www.searchfor-mecca.com 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그의 웹사이트인 <http://nabataea.net>는 아라비아 반도의 초기 문명을 폭넓고 깊게 제시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수 십년을 보낸 후, 김슨과 그의 가족들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계속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I

매일, 하루에 다섯번씩, 십억이 넘는 무슬렘들이 엎드려서 알라에게 그들의 선지자 무하메드가 그들에게 준 기도를 암송한다. 매일, 하루에 다섯번씩, 저 멀리 있는 메카의 흑석을 향하고 이슬람 종교에 새롭게 자신을 복종한다. 매일, 하루에 다섯번씩,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집단으로 엎드려서 이슬람의 추종자들로서 자신들의 결속을 나타낸다. 그들에겐 무하메드가 그들의 선지자이고, 쿠란이 그들의 성서이며, 카바 (Ka' ba)가 그들의 성소이다.

1400 년 동안 무슬렘들은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행위에 의문을 던진 적 없이 거룩한 성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왔다... 그것은 지금까지다. 당신이 읽고 있는 본서는 쿠란에 나오는 지리에 대한 학문적 조사의 몇 단원들에 대한 비평이다. 2011년에 발표된 이 조사는 원래 이슬람의 거룩한 성이 실제로는 메카로부터 북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요르단의 남부 도시 페트라임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 메카가 쿠란에 (Sura, 수라 48 장) 단 한번 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다. 쿠란 주석가들도 전통적으로 수라 3장 96절에 나오는 베카 계곡 (the Valley of Bekka, 혹은 많이 흐느끼는 자의 계곡) 한 곳만을 메카와 함께 연결하여 언급하였다. 쿠란에는 오늘날 메카와 보편적으로 연관짓는 용어인 성소 (*the Sacred Place*), 카바 (*Ka' ba*), 또한 집 (*the House*)에 대한 참조들이 있다. 하지만 쿠란 자체는 여러 말로 카바가 메카에 존재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소책자에서 우리는 김슨의 주장, 즉 고고학과 초기 이슬람 기록들 모두가 무슬람의 거룩한 성을 메카가 아닌 페트라로 가르킨다는 사실을 간단히 검토해 보려한다.

무슬람 학자들은 메카의 위치에 관해 그들이 통상 믿어온 바를 의심할 이유를 보지 못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에 몇몇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를들어 페트리시아 크론 박사 (Dr. Petricia Crone)는 그녀의 저서 *메카인들의 무역과 이슬람의 발흥 (Meccan Trade and the Rise of Islam)* 에서 이슬람 문헌에 나타난 메카의 묘사들이 메카의 현재 위치와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예를들어 초기 이슬람 문헌에는 거룩한 성을 “ 모든 성읍들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cities)” 로 묘사하고

있다. 이 용어는 크고 훌륭한 성읍이거나 아니면 태고적인 성읍을 연상케 한다. 2002년에 김슨은 요르단과 사우디에 있는 저명한 몇 고고학자들에게 메카 내부와 그 주변에 관한 고고학적 기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인용이나 공식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꺼려하면서, 그들은 메카에 관한 고고학 기록이 주후 900년 이전에는 사실상 전무함을 인정하였다. 김슨은 이 학자들이 고대 메카가 가옥들과 정원, 공공 건물과 사원이 있는 성벽의 도시라는 의견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를 저으며, “그런 것들은 그곳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룩한 성은 또한 “무역로의 중심지 (the center of the trade route)”라고 묘사되어 있다. 대상들이 거룩한 성을 출입하였다고 언급한 경우들이 매우 많고, 사실 모하메드의 숙부인 아부 타리브 (Abu Talib)는 무역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상들을 내보내는 상인이었다. 무슬림들에게는 메카가 무역로의 중심지였음이 확고한데 비해, 현대 역사학자들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페트리시아 클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메카는 황폐한 장소였고, 황폐한 곳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름난 푸른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상들이 타이프(Ta'if)에 머물 수 있는데 왜 급경사 길을 내려와 황폐한 땅 메카에 오려고 했겠는가?”

대부분의 무슬림들과 약간의 서구 학자들은 대상들이 유향품, 그리고 다른 이국적인 상품들을 가졌을 것으로 상상했는데, 키스터와 스프렌저 (Kister and Sprenger)의 연구에 의하면, 유향품 시대는 이미 지났고 당시 아랍인들은 가죽과 의류 무역에 종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국제적 규모의 상업 제국을 세우거나 유지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만일 거룩한 성이 그렇게 큰 성읍이라면, 메카라는 이름이 초기 지도에 빠져있는 것도 이상하다. 아라비아의 주요 성읍이라면 초기 시대 당시에 분명히 언급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이 초기 지도들이 모든 마을과 정착지를 담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요한 혹은 유명한 성읍들은 필경 담고 있었을 것이다. 놀라웁게도, 주후 900년 이전의 지도들중 단 하나도 메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때는 무하메드가 사망한지 이미 300년이 흐른 시간이었다.

지난 수년간 김슨은 아라비아의 수많은 옛 지도들을 수집하였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번역하고 복사하였지만, 메카가 언급된 것은 한번도

찾아 볼수 없었다.

여기에 덧붙친다면, 쿠란과 하디스(Hadiths)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메카가 계곡 안에 있으며, 카바 옆에 또 하나의 좀더 작은 계곡이나 또는 시내를 가지고 있다고한다. 이것은 간혹 샘물 유수로 물난리가 있긴 하지만 시내가 없는 현재의 메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수년 동안 김슨은 메카로부터 돌아오는 순례자들과 대화하였다. 그들 중 얼마는 메카 주변의 지리에 다소 불만족이었다. 기록되어 있기를, 거룩한 성은 산들로 둘러 싸여 있어 사람들이 도시를 아래로 내려다 볼수 있었고, 카바를 공격하는 예멘인의 코끼리들을 볼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메카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돌들이 노출된 곳이 카바에서 5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그것도 완만한 경사를 가진 채로. 이 산에 요새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나머지 산들은 3 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져 있다. 이런 거리에서 코끼리가 보이거나 했을까? 사람들이 전투 장면의 얼마를 실제로 볼 수 있었을까?

많은 순례자들이 사파(Safa)와 마르와(Marwah) 라고 불리우는 두 산들에 실망해 왔었다. 이 산들은 너무 작아서 현재 둘 다 사원 건물 안에 완전히 싸여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 시절에는 두 우상, 혹은 예배 장소가 이들 산 꼭대기에 있다고 나타나있다. 오늘날에는 이 우상들을 증거할만한 것, 즉 터나 비문이나 벽, 문, 산을 오르는 계단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슬람 문헌에는 히라(Hira) 산이 성을 마주보며 *메카의 상부 (upper part of Mecca)*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히라 산은 카바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성을 마주보고 있지도 않다.

이슬람 초기 문헌에는 메카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두 지역을 잇는 길이 있었다고 말한다. 오늘날 메카는 평평하고 뚫린 지역, 즉 모래로 쌓은 산을 가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메카에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없다는 것은 초기 이슬람 작가들이 오늘날 메카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암시를 준다.

오래된 기록들은 원래 거룩한 성 계곡에서 풀이 자랐다고 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메카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려운 것은, 메카 주위 지역은 완전히 사막이라 풀은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을 뿐더러, 과거에 이 지역이 관개되어서 풀이나 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 역사학자 알 타바리는 무하메드의 부친 아바다라 (Abdallah)가 부인 아미나 (Aminah) 이외에 둔 다른 부인을 방문한 이야기를 말해준다. 동침하려고 그녀를 찾았을 때 그는 땅에서 일했기 때문에 흙가루가 몸에 묻어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녀가 그를 기다리게 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정결의식을 행하고, 묻었던 진흙을 씻어버리고 대신에 본 부인인 아미나의 처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하메드가 잉태되었다. 알 비 세르중 (R.B. Serjeant) 은 시라(Sirah)에 있는 동일한 이야기를 알프레드 쥘롬 (Alfred Guillaume)이 번역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아랍어 용어가 구체적으로 개간된 땅이나 밭을 의미하는 진흙이나 찰흙을 말한다는 모순 때문에 의아해한다. 그는 메카 근처에는 개간할 만한 땅이 전혀 없었음을 주지한다. 다시금, 고대 기록들은 메카가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메카의 구역들과 메카의 나무들 (the districts of Mecca and trees in Mecca)* 에 관한 참고 자료들이 있다. 하지만, 고대 메카 마을이 워낙 적은 고고학적 자취를 남겼고, 나무는 고사하고 구역들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다. 또 거룩한 성 안과 주위에서 과실 나무들과 포도가 재배되었다는 참고 자료들도 있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오늘날 메카가 위치하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하기가 힘들다.

거룩한 성은 또한 큰 군대들을 양성했었다. 메카는 거대한 대상을 만들어 군대로 행진하기 위해 많은 장정들을 양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던 것 같이 보인다. 김슨은 어떻게 메카가 반복적으로 수백명의 군인들과, 수천의 약대들, 그리고 한번은 메디나를 공격할 때 만명이 넘는 메카 군사들을 양성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메카 사람들이 수년간 전투에서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양성할 수 있었던 군사들과 약대들 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이 큰 성읍이 되어야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메카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자리잡은 작은 장소였음을 믿도록 이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카가 그런 큰 군대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

김슨은 이 모든 것들이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메카에 대한 고대의 설명과 메카의 역사에 대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한다.

메카가 단순히 주요 성읍이었을 뿐 아니라, 이슬람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아라비아에서 순례자들의 중심지였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받아

드린다. 메카에 있었던 초기 사당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김슨은 아라비아의 역사학자들 모두가 순례자들이 항상 원래 *하람* (*haram*) 혹은 *아라비아의 자금성* (*forbidden area of Arabia*)으로 알려진 나바티안 (Nabataean) 도시 *페트라*로 순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라비아에 여러 신성한 곳들이 있긴 하지만, 페트라라는 매장이 이루어졌던 가장 신성한 곳으로 두드러지고, 고대 아라비아에서 주된 성소 혹은 *금지된 성소* (*forbidden sanctuary*)로 자리매김을 한다.

이슬람 역사학자 알 타바리 (Al Tabari)는 주후 900년 그의 저술에서 이슬람 이전에는 순례가 둘이 있었다고 말한다. 더 작은 것이 *움라* (*' umrah*)라고 알려진 순례이다. 그는 압드 알-무타리브 (Abd al-Muttalib, 무하메드의 조부)가 한번 *움라*를 수행했다고 서술한다. 당시는 이슬람의 거룩한 성, 금지된 성소에 후발(Hubal), 이사프 (Isaf) 그리고 나이라 (Na' ilah) 을 포함한 많은 이교도 우상들이 있었다. 쿠란은 이런 전-이슬람 이교도 순례들이 각각 통상적으로 대순례와 소순례라고 불리우던 *하지* (*hajj*) 그리고 *움라* (*' umrah*)로 알려져 있었음을 말한다. 이 이름들이 전-이슬람 시대로부터 계속되어 이슬람 시대에 이르렀고, 바로 오늘날 이슬람의 두 연간 순례들을 일컫는 용어가 된 것이다.

그러나 김슨은 고대로부터 아라비아의 순례는 항상 아라비아의 종교 중심지인 금지된 성소, 거룩한 매장의 성읍인 페트라로 향했음을 지적한다. 바로 이 성읍에서 사망한 나바티안 아랍인이 매장되었고, 바로 이 도시에서 산 자들이 모여 친척들과 함께 타계한 조상들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 풍습이 나바티안 사람들의 문화 및 종족 구성의 일부가 되었고, 장사하는 유목민인 그들을 함께 한 공동체로 결속하는 접착제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페트라에서는 방문객들이 많은 무덤들에 부속된 연회홀들을 볼수 있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잔치하였다.

또한 김슨은 무슬람 *키브라* (*qibla*) 에 관한 쟁점을 제기한다. 오늘날 모든 회교 사원들은 기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여할 뿐아니라, 이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불박이로 만들어 놓은 건축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 키브라는 모든 무슬람들이 향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오늘날 모든 사원들은 메카 방향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키브라 벽에 불박이로 만든 한 벽감 (역자주:벽면을 파내어 조각품이나 장식품을 놓도록 만든

곳, *mihrab*)이 있다. 그러나 바로 초창기의 회교 사원들에는 이 *미흐라브* 벽감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신도들이 *키브라* 벽을 향하면 자동적으로 이슬람의 거룩한 성을 향하게 되어있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향할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도 자유로이 기도할 수 있다. 유대인들 역시 처방해 놓은 기도 방향은 없다. 다만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 내용을 근거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터를 향해 기도하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약간 있긴하다.

이슬람에서는, 보편적으로 키브라가 변경되었다고 이해되고, 그리고 이 변경이 쿠란에 언급되어 있다. 쿠란 원문 자체는 기도가 원래 어디를 향하였는지 그 지명을 밝히거나, 혹은 변경된 지명이나 변경 시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 주후 920년에 저술한 알 타바리에 의하면, 전-이슬람 시절동안 키브라 주제가 나왔을 때 모하메드가 사람들에게 시리아를 향해 기도하도록 지시했다고한다. 김슨은 쿠란과 초기 하디스와 초기 이슬람 역사들이 결코 키브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이슬람 문헌 속에서 예루살렘이 키브라로서 언급되는 것은 무하메드가 사망한지 300년이 지나기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의 모든 기록들은 단순히 모하메드가 시리아를 향해 기도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기록들이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이상스러운 것은, 예루살렘이 당시 잘 알려진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무하메드는 이 원래 키브라를 624년 2월까지 계속했고, 그 이후에 키브라를 메카를 향하도록 변경했다고 이슬람 자료들이 밝히고 있다.

고고학이 키브라의 변경을 반증한다. 메카가 아닌 방향을 향하고 있는 초기 회교 사원들이 많이 있다. 김슨은 이런 초기 사원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하였고, 사원 건축의 상세한 내용들과 키브라들, 그리고 종종 항공 사진이나 위성 사진들을 제공하였다. 그가 초기 사원들의 연구를 시작한 것은 모하메드 생전에 건축된 처음 몇 안되는 사원들이 무하메드가 가졌던 기도의 원래 초점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모하메드의 사망후 100 년이 넘어서 새로 건축된 회교 사원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리아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하였다. 이 사원들을 사용해서 그는 지도 상에 선들을 그을 수 있었고

그 선들이 어디에서 교차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원들의 건축 날짜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는 또한 무하메드가 생존 기간 중인 624년 2월이라는 이슬람 날짜가 그릇된 것임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키브라가 훨씬 후에 변경됐음을 고고학이 분명하게 증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원들은 각각 김슨의 학문적 서적인 **쿠란의 지리학**에 전부 기록되어 있으며, <http://indipress.ca/feature.html>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키브라 변경		
100% 페트라 지향 (우리가 결정할수 있었던 사원들 중에서)	12% 페트라 지향 50% 메카지향 38% 평행선 지향	100% 메카 지향
페트라	혼돈	메카
AH* 1 - 107 AH 622 주후 - 725 주후	107 AH - 207 AH 725 주후 - 822 주후	207 AH- 현재 822 주후- 현재
	제2 내전	아바시드통치시작
(역자주: * After Hajira. 이슬람 년도. 메디나로 쫓겨나간 주후 622년이 원년이다)		

II

그의 저서 *쿠란의 지리학*에서 김슨은 많은 초기 회교 사원들을 건축된 날짜 별로 목록을 만들고, 그 사원들의 키브라의 방향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 그는 메카의 방향과 또 그가 첫 거룩한 성이 존재했다고 믿는 페트라 지역의 방향을 나타내는 항공 사진들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두 키브라의 사원이라고 알려진 한 회교 사원이 있다. 이곳은 기도 인도자가 키브라를 변경하라는 말을 들었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가 180도 돌았으며, 기도 방향(키브라)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한다. 따라서 이 사원은 독특하게 두 기도 벽감들(미흐랍)을 가지고 있다. 1987년에 이 사원을 완전히 수리를 하였는데, 북쪽을 향하던 옛 기도 벽감을 제거하고, 메카를 향하는 것만을 남겨놓았다. 이 오래된 사원을 철거할 때, 이전 사원의 기초석들이 원래 건물이 페트라와 예루살렘을 모두를 가르키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둘다 거의 같은 방향임) 북쪽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김슨은 바로 여기가 처음 키브라가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주장의 근원지라고 믿는다.

그러나 키브라가 두개 있는 사원이 이것만이 아니다. 카이로 근처에는 주후 641년에 세워진 푸스타(Fustat) 사원이 있다. 이 사원의 원래 설계도는 키브라가 페트라를 향하는 동쪽을 향하고 있음과 수년 후에 그것이 교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래 키브라가 예루살렘이 아닌 페트라를 향하는 12 개의 초기 회교 사원들에 대한 김슨의 연구는 계속된다.

*쿠란의 지리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슨은 이슬람 역사에 관한 32 페이지에 달하는 도해가 들어있는 개요를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어떻게 원래 키브라가 거룩한 성에서 일어났던 이븐 주바이어 (Ibn Zubayr) 의 반란 동안에 페트라에서 메카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카바의 파손과 그에 따른 재건에 대해 기술한다. 그런 후에 김슨은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미흐랍 (mirrab) 표시나 벽감이 사원 설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보통 우트만 이븐 아판 (' Uthman ibn Affan, 644-645)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칼리프가 메디나에 있던 회교 사원들 벽에

순례자들로 하여금 기도 방향을 쉽게 식별하도록 표시판 부착을 명령했다고 말한다. 김슨은 이것이 이상한 전개라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가 그때까지는 신자들이 기도 방향에 대해 전혀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원 건물 전체가 항상 키브라를 향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지어진 사원들 안에 한 표시판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새 키브라가 도입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이 일이 있던 직후에 메디나에 있는 선지자의 사원 (the Mosque of the Prophet)이 수리되었는데 메디나 통치자가 새 키브라를 가르키는 벽감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우트만의 표시판을 벽감 안에 넣어두게 하였다. 점차적으로, 벽감은 키브라 방향을 식별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면서, 다른 사원에서도 볼거리로 채택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흐랍 벽감이 김슨이 키브라가 변경되었다는 시간 직후에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자명하게도, 어느 방향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돈이 있었으므로, 오래된 사원들은 신도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미흐랍 벽감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김슨은 *혼돈의 시간 (a Time of Confusion)*이 AH 107 년 경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후 백년 동안 새 사원은 다른 방향들을 가르키기 시작했다. 예로서, 팔미라 시리아 (Palmyra Syria) 근처에 있는 하이어 알 갈비 (Hayr al-Gharbi)와 하이어 알 샨키 (Hayr al-Sharqi) 궁전들은 둘다 페트라와 메카 중간을 지향하는 키브라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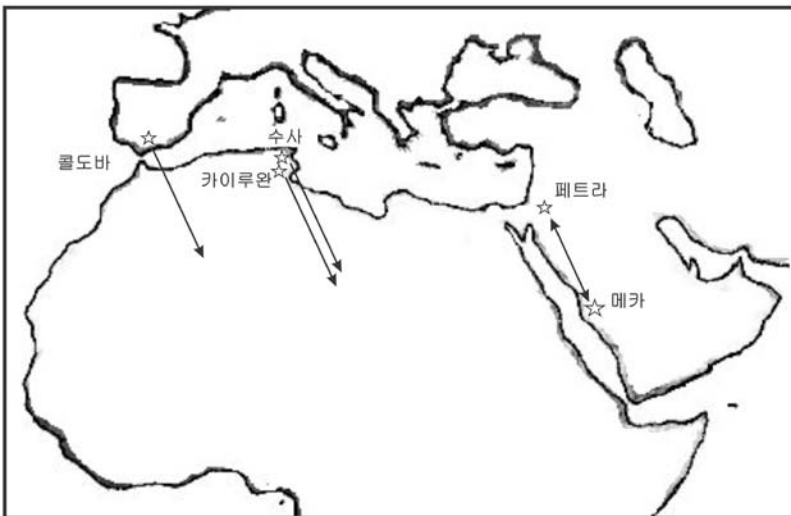
그러나 요르단에서 이 사원 바로 다음에 지어진 무샤타 사원은 여전히 페트라를 향하고 있다. 몇년 후인 주후 754년에 세워진 알 만수르 (al Mansur) 사원은 분명하게 메카를 가르키고 있다.

이 시기에 건축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 있는 사원들은 완전히 다르다 (역자주: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은 이슬람 통치하에 있었다). 튀니지아 수사 (Susa)에 있는 리바 요새 (Ribat Fortress)의 기초석은 주후 770년에 놓여졌는데, 메카나 페트라를 향하기 보다는 남쪽을 가르키고 있다. 곧 이어 주후 784년에 건축된 유명한 콜도바 대사원 (the Great Mosque of Cordoba)도 수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메카나 페트라를 지형하지 않고 남쪽을 향하였다. 김슨은 이것이 스페인에 있는 우마야드 (Umayyad) 통치자들이 이란에 새로 등장한 아바시드 (Abbasid) 통치자들과 불화함으로 그들과 같은 키브라 (즉 메카)를 사용하길 거부했지만, 동시에 흑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원래

거룩한 성을 향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몇년 후 튀니지아에 있는 카이루안 대사원 (the Great Mosque of Kairouan)과 수사 대사원 (the Great Mosque of Susa) 역시 키브라가 남쪽을 향하며 건축되었다.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들 사원들은 역사학자들을 오래동안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김슨은 우리가 그 당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AH 133년 (주후 750년) 이후 이락의 아바시드 (Abbasids)가 시리아의 우마야드 (Umayyads) 를 이기고 바그다드 성에 이슬람 통치를 위한 새로운 센터를 세웠다. 이 시점으로 부터 모든 중동 (아바시드, Abbasid) 사원들은 메카를 향하였다.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우마야드 (Umayyads)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고, 무슬람 세계는 둘로 나뉘어졌다. 동부에는 아비시드 (Abbasids), 서부에는 우마야드 (Umayyads)로. 동부는 여전히 민중 소요와 공개적 반란들로 싸우고 있었지만, 서부에 있는 우마야드는 배움과 문화와 건축을 확장하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예외로서 먼저 사원의 기초 위에 재건축한 사원들 몇개를 제외하곤, 모든 새 아바시드 사원들은 이 시점부터 메카를 향하였고 서부에 위치한 우마야드는 다른 키브라를 택하였다. 김슨은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 있는 사원들이 페트라와 메카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키브라를 채택했음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초기 사원들이 페트라를 향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한 다음, 김슨은 고대 문학적 근원들에게 눈을 돌린다. 그는 메카에 오늘날 메카에는 없는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다고 기술한 메카에 관한 초기 기록을 지적함으로 시작한다. 그는 또한 선지자가 입성했을 때 두개의 “타니아, thaniyas” 혹은 바위 틈새에 관한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또한 초기 문헌들이 메카 성벽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말한다. 김슨은 오늘날 메카는 바위 틈새나 성벽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절하게 지적한다. 반대로 페트라는 계곡에 세워졌다. 성벽은 공격자들이 아래 계곡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며 서있다. 페트라 성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둘다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다른 두 입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다 산들을 통과하는 좁은 틈새들이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페트라 성을 시크 (siq) 라고 불리우는 틈을 통하여 들어간다. 다른 타니아는 열주로 된 거리 반대편 위에 있고, 협곡의 미로로 이끌어 가다가 점차적으로 아라바 (Araba) 와디로 끝난다.

다음에 김슨은 주무루드 (Zummurud)라고 알려진 고서를 다룬다. 이 책은 현대까지 보존되어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후의 다양한 학자들이 이 책을 인용하며 반대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무루드는 무하메드가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에 간 밤 여행을 기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도시가 사람이 하루밤에 다녀 올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가깝게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무슬람 학자들은 이와같은 주장때문에 주무루드의 신빙성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만일 이슬람의 거룩한 성이 실로 페트라이라면 이 설명은 절대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 페트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직 100 마일이다. 말 타고 꽤 힘든 여행이 되었겠지만, 사람이 하루에 왕복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무슬람 학자들이 페트라 성을 잊어버린지 수년이 지난 때에, 주무루드의 기록들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 당시는 이미 모하메드의 예루살렘 행 밤 여행이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슬람 문헌을 조사하면서, 김슨은 모든 초기 이슬람 문헌에 페트라 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음을 발견했다. 페트라 문서들에는 페트라가 6 세기를 통해 기능적 내륙 지방을 가진 활동적인 성으로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초기 이슬람 문헌에는 페트라에의 언급이 없는가? 그 지역을 지나간 사람들과 통과한 군대들의 기록들도 많은데, 페트라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동시에, 비이슬람 문헌들이 페트라에 언급하지만 메카는 전혀 언급이 없다. 콘티누아티오 비잔티아 아라비카 (Continuatio Byzantia Arabia)에 처음으로 나타난 주후 740년 이전에는 어떤 문헌에도 메카의 언급이 없다.

만일 페트라가 흑석이 메카로 옮겨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처음 이슬람의 거룩한 성이라면, 후일 편집자들이 페트라에 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 말이지 않을까? 페트라에 대한 기록이 아라비아의 메카로 전이되었고 따라서 페트라에 대한 모든 언급이 이슬람 문헌에서 제거되어 버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쿠란의 지리학은 또한 흑석의 근원들을 추적하고, 이런 돌이 고대에는 예배의 초점이었음을 입증한다. 이에 관하여 두로의 맥시무스 (Maximus)는 수다 (Suda) 사전 (Lexicon)과 마찬가지로 흑석이 메카가 아닌 페트라에 있었다고 말한다.

거룩한 성이 메카가 아니고 페트라였음을 보여주는 12개의 문헌적 증거 이외에, 깁슨은 또한 17개의 역사학적 증명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 중에 거룩한 성 주위에 성역임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던 큰 돌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큰 돌들은 페트라에는 있지만 메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메카에서 경배되었다고 언급되는 두사라 (Dushara) 신이 있는데, 두사라는 거의 독점적으로 페트라에서만 경배된 신이었다. 깁슨은 또한 거룩한 성에서 행하였던 행운의 게임에 대한 참고 자료를 지적하며, 페트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고대 게임 보드를 지적한다.

계속해서 깁슨은 페트라가 메디나의 북쪽에 위치하며 메카는 남쪽에 위치함을 보여준다. 이어서 그는 메디나를 위한 전투 (the Battle for Medina) 중에, 메카로부터 오는 쿠라쉬 (Quraysh) 군대들이 항상 메디나를 북쪽으로부터 공격하였음과, 또한 협곡 전투 (the Battle of the Trench) 중 메디나는 성 북쪽에 위치한 두 산들 사이의 협곡에 의해 수비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무슬람 군대들이 거룩한 성을 치기 위하여 메디나에서 출정할 때엔 항상 메디나 북쪽 (페트라를 향한)으로 행진하였지 남쪽으로 (메카를 향한) 행진하지 않았다.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동 자취들을 추적해 보았는데 모하메드 생전에 한 그들의 여행이 잘 맞게 설명되는 곳은 페트라 성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메카를 위한 전투에 대한 초기 기술들은 많은 난점들을 야기한다. 무슬람 군대가 메디나에서 북쪽으로 행진하여 요르단 남부에 있는 비잔틴 군대를 공격한다. 첫 전투에서 진 뒤에 그들은 거룩한 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무슬람 문헌은 무슬람 군대가 메카를 공격하기 위해 저 아라비아 반도 끝까지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비잔틴 군대와 싸우기 위해 다시 북쪽 끝까지 올라왔다고 믿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김슨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군대가 행진했어야 할 거리를 생각해 보라. 메디나에서 무타 (Mu' ta, 요르단에 있음) 까지가 가장 직선 길을 따라 약 900 km이고, 무타에서 메카까지 또 1200 km이다. 메카에서 아라비아 북부까지 여행길이 또 1000 km. 이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지대 (험한 산, 불타는 사막, 물없는 평지) 몇 곳을 가로 지르는 총 3100 km 가 되었을 것이다.*” 지도를 통해 김슨은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어색한 것인가를 입증한다.

다음에 김슨은 알 타바리 (Al Tabari) 가 쓴 기록에서 발견되는 메카에 대한 문제성 있는 기술, 즉 무슬람 군대가 메카의 성벽으로 쌓인 정원들을 공격하기 전에 거룩한 성을 협곡의 미로를 통하여 조용히 접근하였다고 하는 것을 다룬다. 그리고 페트라 남쪽에 있는 협곡의 사진들을 제시하고 이 기술에 부합하는 통로를 기술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쿠란의 지리학**은 무슬람들이 고대 메카가 아라비아 왕국들 사이에 있는 대상로의 주요 성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다고 입증하지 않는다. 혹자는 현 메카의 바로 남쪽인 예멘에 존재했던 왕국들이나, 북쪽에 존재했던 왕국들이 바로 메카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닌 것이,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메카 북부와 남부 지역의 많은 소왕국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지역에서 수 천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메카 성에 대한 어떠한 참조 자료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김슨은 이락에서 무슬람 군대의 장교들이 군대가 다음 성으로 행진하는 동안 거룩한 성으로 신속한 순례를 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주장을 점검한다. 전통적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들이 페트라까지 왕복 1500 km가 아닌 메카까지 3000 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다고 믿으라 한다.

제공된 여행 날짜들을 사용하여, 김슨은 그들이 현재 메카까지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과, 그러나 페트라라는 만일 그들이 사막을 바로 가로질렀을 경우 가능 영역안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이 여행의 가능 경로와, 여행을 가능케 했을 사막에 있는 고대 저수지들의 위치를 기술한다.

이 모든 증거들은 분명하게 이슬람의 거룩한 성의 더 신빙성있는 위치가 메카가 아닌 페트라임을 지적하고 있다. 김슨은 주후 700년 이전의 역사를 메카 대신에 페트라로 대신해서 읽으면 이슬람 역사가 훨씬 더 이치에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III

그러면 어떻게해서 키브라 방향이 페트라에서 메카로 그렇게 늦은 때에 바뀌어졌는가? **쿠란의 지리학**은 두번째 이슬람 내전을 설명해준다: 주후 683년, 즉 이슬람이 세워지고 64년이 지난 때에, 압달라 이빈 알-주바이어 (Abdallah ibn al-Zubayr) 가 거룩한 성에서 자신을 칼리프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마야드 통치자들에 반기를 든 것으로, 이들 통치자들이 강하게 반응하여 거룩한 성에 군대를 파견했다. 시리아인들이 거룩한 성에 있는 이빈 알-주바이어와 그의 동조자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칼리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군대와 함께 있었던 우마야드에 속한 사람들이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다. 당시 일어났던 일들과 알려진 날짜들을 보면, 이 군대가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떠나 다시 다마스쿠스에 칼리프가 죽은지 40일 만에 도착한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알 타바리는 이빈 알 주바이어가 카바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기초를 파내었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그는 흑석을 비단 천에 싸서 나무로 된 받침대에 올려 놓았다고 한다.

다음 해 (65 AH)에 이빈 주바이어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놓았던 참기초석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슨은 이 주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해졌다고 믿는다. 이빈 주바이어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마야드 세력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아라비아의 외진 곳을 택하고 그곳에 새 카바 성전을 지었는지 모른다. 이 당시에 다마스쿠스의 우마야드 사람들은 몇몇 칼리프들이 차례로 사망하는 내부 분쟁에 관여하고 있었다.

AH 68년에 각각 다른 깃발 아래 순례를 행한 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전으로 네개의 당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돌이 정말 이동되었다면, 왜 각기 다른 장소로 향하는 네개의 순례들이 있었는지를 설명 할수 있을 것이다. AH 69년에는 다마스쿠스 자체에서

반란이 일어나, 사람들의 주의가 거룩한 성의 문제들로부터는 더 분산되었다.

김슨은 알 타라리가 이 기간동안 매해의 역사를 수 페이지를 할애하며 제공하면서도, 유독 AH 70 년에 관해서는 이빈 주바이어가 수많은 말과 약대 그리고 행낭들을 구입하였다고만 말한 것을 지적한다. 이 사실은 김슨으로 하여금 주바이어 사람들 일부가 이때에 이미 새 카바 성전에 흑석을 안치한 메카로 이주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도록 이끈다.

AH 71년에 아라비아 여러 지역에서 더 반란들이 있었다. 쿠파 (Kufa) 성이 반란하였고 이들이 이빈 주바이어가 새 키브라를 축전하는데 결합하였다. 이들은 이빈 주바이어에게 이제 자신들이 같은 키브라를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AH 73-74년에 시리아 군대가 거룩한 성 페트라를 포위하고 투석기를 사용하여 성의 내부를 파괴하였다. 메카 성에는 이 투석기의 돌들이 성을 파괴하는데 사용된 증거가 없을 뿐더러, 투석기로 돌을 위로 넘겨야 할 성벽조차도 있었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페트라에서는 고고학자들이 두샤라 (Dushara) 사원 앞 중앙 안뜰 안으로 투척당한 수 백개가 넘는 투석기 돌들을 찾아내었다. 김슨은 근처에 있는 대사원 (the Great Temple)에서 떨어진 지붕 기와를 사용하여 요새화된 지역과 돌들의 연대를 주후 551년에 일어난 지진의 얼마 후임을 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은 나중 주후 713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다. 김슨은 우리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던진다. “ 놀라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닌가? 알-타라리가 메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언급한 정확한 그 시간에 페트라를 향해 투석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AH 82년 경에 양만에 있는 우마야드 궁전과 회교 사원 건물들은 메카를 향하여 건축되었다. 이것은 건축에 새 키브라가 사용되고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묘하게도, AH 83년과 87년 사이에는 기록된 순례들이 없다. 이때에 키브라 방향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아무도 순례를 어디로 가야되는 지에 대해 일치를 보지 못한 것같이 보여진다. 폐허된 페트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흑석을 안치하고 있는 아라비아의 새로운 카바로 가야하는가?

이때를 즈음하여 회교 사원에서는 새로운 키브라 방향을 가르키는 표시를 벽에 걸기 시작하였다. 김슨은 바로 이 해에 메디나에 있는 사원의

키브라 벽이, 사람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한 통치자의 권위로, 변경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AH 89년에 미흐랍 벽감이 기도의 새로운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새 사원들에 제정되었다.

김슨은 이 시기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록된 지진들을 소개하며, AH 94 년에 한 지진으로 인해 페트라와 메카가 파괴되고 성이 버려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아라비아의 메카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믿으며, 지진에서 보여진 신성한 활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우마야드 스페인에 있는 새 사원들은 키브라를 페트라와 메카를 잇는 직선과 평행되게 향하도록 하였음을 주지한다. 수년 후인 AH 122 년에 콘스치누아티오 비잔티아 아라비카 (Continuatio Byzantia Arabica)에 처음으로 메카 언급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AH 128 년에 또 다른 지진이 시리아와 요르단에 있는 건물들을 파괴하였고, 흑석을 거룩한 성으로 귀속시키는 모든 소망은 사라졌다고 김슨은 주장한다.

몇년 후 AH 132 년에 아바시드 (Abbasids)가 이락에서부터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락에 있는 쿠파 (Kufa) 성이 메카 키브라를 아주 일찍 채택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모든 사원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하였고, 쿠파 언어로 기록된 모든 쿠란은 수라 (Sura) 2장에 키브라 변경을 언급하는 귀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김슨은 그의 책 마지막에 초기의 쿠란들과 그 내용들에 관한 목록을 제공하면서 수라 2장에 언급된 키브라 변경에 관한 쟁점으로 돌아온다. 그는 만일 키브라가 히즈라 (Hijra) 가 있는 지 70 년이 지나도록 변경되지 않았었다면, 아주 초기의 쿠란들이 이 귀절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IV

쿠란의 지리학은 초기 이슬람 항해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 전-이슬람 시대에 거리가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어떻게 별들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찾는 데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무슬림 건축가들이 카브라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어서 아바시드 통치자들이 이슬람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려 했을까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통치자들은 이슬람 학자들을 독려하여 약 200 년전 이슬람이 생기던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역사들을 편집하게 했다. 김슨은 이 재구성들이 문헌적 공백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그는 칼리프 우마르 ('Umar)가 방금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한 무슬림 군대의 지도자인 암루 (Amrou)에게 보낸 편지를 기록한다. 암루가 칼리프에게 이집트 창고에서 발견한 수 천개의 원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었다. 칼리프가 대답하기를:

“ 당신이 언급한 서적들에 대한 나의 답은 이렇다. 만일 그 내용이 알라의 책과 일치하면, 그것들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알라의 책으로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만일 반대로 알라의 책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아가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김슨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의 남은 서적들이 불태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다른 무슬람 작가 이빈 알-키프티 (al-Qufti)가 당시 이 도서관들이 알렉산드리아의 공동 목욕탕에 배분되어 탕을 따뜻하게 데우는 화로의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말한 것을 주지한다. 이빈 알-키프티가 기록하기를, “ 목욕탕 수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난 수가 몇개인지 잊어버렸다. 사람들 말로는 모든 도서관들을 다 태우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유티키우스 (Euthychius)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부터 책을 받은 목욕탕이 4000개 라고 말한다.

무슬람 장군 암루와 이집트 족장 사이의 교류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페트로로지아 오리엔카리스 (Patrologia Orientali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리아 원고 또한 이것을 증명하며, 1915년 저널 아시아티크 (Journal Asiatique) 에 해설과 함께 발표되었다.

그러나 서적을 불사르는 것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 카리프 우마르 (Umar) 군대가 주후 637년에 사사니 (Sassanian) 왕국의 수도 스테시폰 (Ctesiphon)을 향해 진격했을 때, 궁전과 스테시폰의 대도서관이 불태워졌다.

서적을 불태운 또 다른 예는 수년 후 무슬림 침략자들이 인도에 도달했을 때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불교 지식의 보존지이자 수 십만 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던 나란다 (Nalanda) 의 도서관이 화염에 싸여 소각되었다.

심지어 기독교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다. 주후 722년-723년에 우마야드 칼리프 야지드 2세 (Yazid II)가 내린 “야지드의 칙령 (the Edict of Yazid)” 은 칼리프 통치 구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독교 상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현 요르단에 교회 모자이크가 이때 제거되거나 덮어버림을 받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다만 오늘날 페트라 성이 야지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열성 무슬림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문들을 유실했다고 유추할 따름이다.

최종적으로 아라비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책은 영광스러운 쿠란이다. 그러나 역사 학자들은 심지어 여기에도 고심이 있다. 대부분의 쿠란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보존되어온 것 같다. 아랍 사람들이 암기에 능하고 쿠란 전체를 보존하는 능력을 가졌긴 하지만, 구전 안에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된다. 첫째로, 암기에 관련된 개인들의 기억력의 정확도가 완벽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쿠란의 경우, 여러 귀절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었다. 어떻게 남겨 놓아야 되는지, 또는 전체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닌지 등을 다루었다.

둘째로, 학자로부터 초보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종종 어려운 과정이다. 쿠란의 경우, 무하메드의 말들을 외웠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사들이었다. 흔히 그러하듯이, 전사들은 전투에서 죽기 마련인데, 따라서 그들이 가졌던 쿠란의 지식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이런 경우는 야마마 (Yamama) 전투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전투에서 쿠란을 암기하는 450 명의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다.

칼리프 우트만 (' Uthman)은 당시에 쿠란을 한가지 기록으로 편찬하고 그 사본 하나를 모든 무슬람 지방에 보냈다. 그리고 다른 쿠란 자료들을, 그것이 단편적 원고들이건 전권이건, 모두 불태워 버릴 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칼리프 우말 (' Umar) 생애 동안에 아라비아 전체에 쿠란 전집이 오직 5- 6 개 밖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바시드 저자들이 이슬람 역사를 재창조 해내었을 때 그들을 반대 할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었다. 초기를 알고 있을 만한 쿠라이쉬 (Quraysh) 족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지 오래 되었거나 왕국 변방에 살고 있었다. 존재하는 옛 쿠란들 중 어떤 것도 전적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었고, 그 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쿠란의 부분적인 사본임을 확신하였다. 아바시드인들은 키브라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귀절들을 포함한 모든 귀절들을 포함하는 쿠란의 “ 완전 ” 역본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하여, 쿠란의 이전 역본들도 여전히 공경받고, 하지만 새 역본들은 키브라가 모하메드 생전에 변경되었다고 말하는 수라 2장 143-145절과 같은 귀절들을 첨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슨은 아바시드 저자 네명을 택하여 이 기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확증한다. 첫째가 이빈 히삼 (Hosham)인데 그는 과거의 기록들을 편집하는 일을 실행한다. 그는 시라트 라술 알라 (Sirat Rasul Alla, 무하메드의 삶) 로 알려진 이전 작품을 편집하는데, *//통한 착오들 (grievous errors)*을 교정하고 당시 정치 풍토에 맞게 만든다.

히람 다음으로, 부카hari (Bukahari)는 전승과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모하메드의 어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모두 합하여 약 3000,000 개를 수집했는데 그중 2,602 개만 그의 책에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버렸다.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무슬람 학자들 역시 이슬람 시작 전후로 완전한 문헌적 공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사람들이 모하메드에 관해 말한 것들을 수집하고 심사하였다. 따라서, 초기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기록의 많은 부분이 이런 어록과 전승 (hadiths)을 수집하였던 이후 무슬람 저자들에 의해 편집되었었다.

이어서 주후 839년 부터 923년 까지 살았던 무슬림 역사학자 알 타바리가 있다. 알 타바리는 그에게 내려온 하디스와 전통에 의거하여 이슬람 역사를 썼다. 수년 후에 야쿠트 (Yakut)가 여러 장소들의 위치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지리학을 편찬하였다. 이슬람이 생긴지 수백년이 지난 후에 저술하면서, 그는 당시의 전통과 말들에 따라 고대의 위치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이들 네명의 대표적인 저자들로부터 (더 많은 예들이 **쿠란의 지리학**의 부록 A 와 B 에 언급 되어 있음) 우리는 이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이 기술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저술하였으며, 그 당시의 정치적으로 타당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혹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아바시드가 그들의 통치의 기반을 자신들이 무하메드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권위 위에 두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쿠라이쉬 측은 왕국의 아주 원방으로 내버림을 받았다. 그들 중 아라비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다. 여기에 더하여, 바그다드에는 “새 (new)” 쿠란과 메카의 위치를 지지했던 이슬람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었겠는가? 아바시드 사람들은 종교 뿐 아니라 모든 지식의 연구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후에, 많은 수의 학자들이 출현하였고, 바그다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배움의 전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아라비아 메카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메카로 순례하는 것이 전부 틀리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바레인의 수도 하자르 (Hajar)와 알-하사 (al-Hasa)를 장악하였다. 알-하사는 새로운 자신들의 카르마티 나라 (new Qarmatian State)의 수도가 되었다. 이들 카마티인들은 무슬람들이 메카로 순례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메카 순례를 반대했는지 점차적으로 순례자 무리를 매복하였다가 학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후 929 년에 그들은 메카를 약탈하고, 쟁쟁 우물 (the Well of Zamzam)을 순례자들 시체로 부정케하였고, 흑석을 제거하였다. 흑석이 볼모로 잡혀있고, 순례가 중단되어 이슬람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주후 952 년에 아바시드인들이 흑석 반환의 몫으로 거액을 지불할 것을 동의하였다. 그들이 받고 보니, 흑석은 여러 조각으로 부셔져 있었다.

주후 976 년 아바시드인들의 손에 패배를 맞본 후, 카르마티인들은 내부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서서히 그들의 입지는 지방 세력 정도로 줄어들었다.

김슨은 자신의 연구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많은 원고들이 “ 정치적으로 타당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본문이 본래 무엇을 포함하였을 가를 결정하기 위해 애를 써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편집자들이 고칠 때 빠트린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 속으로 거꾸로 읽어 들어가야 했다. 예를들어, 만일 기도의 본래 방향이 페트라였는데 나중에 남쪽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바뀌었다면, 나중에 저자들과 편집자들은 이전 원고들에서 페트라에 관한 모든 참조들을 제거하고 메카로 참조하도록 만들기위해 이전 원고들을 편집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이것의 한 가지 예가 이전 키브라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발상은 대부분 아바시드 저자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의 기록들에서 발견되며, 초기 기록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알-아크사 (‘ Al-Aqsa)라는 용어도 키브라의 초기 중점지로서 예루살렘에게 약간의 신망을 주기 위해 나중에 예루살렘에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연구가들은 후일 편집자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당하게 본문들을 “ 향상 (improve)” 시키려고 애쓰기 이전에 본래 포함되었던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 본문 속으로 읽어 가기를 시도하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슨은 부카하리 (Bujhari)의 기록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부카하리가 첫 키브라가 “ 북쪽” 을 의미하는 다마스쿠스의 아랍식 이름인 샴 (Sham)을 향했다고 말하는데, 몇 문장 뒤에서는 첫 키브라가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말하고 있다. 몇 페이지 뒤에서 부카하리는 분명히 다마스쿠스가 “ 샴” 임을 인정한다.

김슨은 첫 키브라가 페트라를 향했으며, 페트라가 로마의 시리아 지방의 성읍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아랍인들에게 페트라는 “ 시리아” 로 불리웠다고 믿는다. 이것은 한 문장에서는 온타리오를 향해 기도했다고

하다가 다른 문장에서는 토론토를 향해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비슷하다. 이 경우는 부카하리나 아니면 후일 무명의 편집자가 본문에 예루살렘을 삽입했는데, 삼(다마스쿠스)에 관한 이전 참조문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김슨은 이렇게 그의 책을 결론짓는다: *이슬람의 거룩한 성이 아라비아 북부의 페트라에서 아라비아 남부로 우마야다 왕조의 말기 때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한 주된 논쟁의 하나는 쿠란이 모하메드 생전에 이 변경이 일어났다고 가르킨다는 것이다. 이 귀절들이 수라 2:142-147 에 있다. 쿠란은 이전 키브라가 어디를 향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고, 오직 성사원 (the Sacred Mosque)을 향하여 변경되었다는 것만 말해주고 있다. 쿠란은 또한 키브라 변경이 알라에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만일 쿠란이 알라의 정확한 말이고 하늘에 있는 원본의 복사라면, 그렇다면 쿠란은 변경되거나 교정 받을 수가 없다. 모든 무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귀절들을 통해 키브라가 모하메드 생전에 변경되었다고 이해한다. 모하메드가 죽은 지 수백년이 지난 후에 이슬람 학자들은 우리에게 원래 키브라가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가르쳐준다. 이들은 모하메드가 수라 2 장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가 메디나 사원에서 있었는데, 그가 돌아서서, 북쪽 (시리아를 향하는) 대신에 남쪽을 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쿠란은 옛 키브라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마리를 주지 않는다. 심지어 새 키브라의 방향조차도 성사원을 향한다고만 말할뿐 ...

...알 무와타 (Al Muwatta) 14:7 는 명시한다: 야흐야 (Yahya)가 나에게 야흐야 이븐 사이드 (Yahya ibn Sa' id)에서 온 말릭 (Malik)으로부터 사이드 이븐 알-무사야브 (Sa' id ibn al-Musayyab)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 알라의 사자가, 알라의 복과 평강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메디나에 도착한 이후로 16개월 동안 베이트 알-마크디스 (Bayt al-Maqdis)를 향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바드르 (Badr) 전투가 있기 두달 전에 키브라가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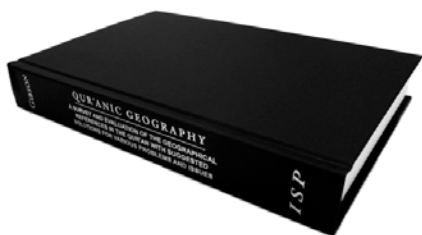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은 키브라가 히즈라 (Hijra)가 있는지 70년 후에 변경되었으며, 이 변경이 이후 100년 동안에 걸쳐 점차적으로

받아드려졌음을 가르키는 고고학적, 역사학적, 문헌적인 증거들과 상반된다. 또한 후기 저자들이 신성한 본문들을 함부로 변경하였고 그들의 이론들을 지지하는 새로운 역사를 고안하였다는 강한 표시들이 존재한다. 참으로 1200 년 전에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바시드 저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제시된 지리를 고고학적 증거 또한 문헌적 그리고 역사학적 기록들과 비교해 볼때, 무언가가 일치되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결론은 이슬람이 북부 아라비아 페트라 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신도들이 메디나로 쫓겨나기 전에 쿠란의 첫 부분들이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모하메드는 메카를 전혀 방문한 적이 없으며, 처음 제대로 인도함을 받은 네 명의 칼리프들도 그러했다. 메카는 고대에 결코 예배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아라비아의 고대 상업로에 일부도 아니었다. 역사를 통해 계속 아랍인들은 많은 고대 사원들과 교회들이 존재했던 페트라 성으로 순례를 행했다. 한 지진 후에 돌더미 속과 중앙 뜰로부터 350 우상들이 회수된 곳도 페트라였다. 모하메드가 흑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지시한 곳도 페트라였다. 이 흑석은 페트라에 있는 카바에 남아 있었다가, 이후에 이븐 알-주바이에의 추종자들에 의해 우마야드 군대들을 피해 안전을 위해 아라비아 깊숙히 메카 마을로 옮겨졌다. 그리고 오늘날 무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성과 무하메드가 그들에게 준 키브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돌을 향하고 있다.

나는 내가 발견한 고고학적, 역사학적, 문헌적 사실들을 달리 해석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결론들이다. 나는 더 배우는 것에 또 고대 아라비아에서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발견하는데 열려있다.

만일 당신이 이 분야를 더 연구하길 원하면, **쿠란의 지리학**을 구입하시라. 왜냐하면 이 책이 참조, 각주, 사진, 도표, 위성 이미지, 연대표, 참고 문헌 목록들과 더 많은 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서양 학자들 뿐 아니라 김슨의 책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연구하고 답을 찾는 이슬람 학자들의 반응을 함께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Qur'anic Geography

A survey and evaluation of the geographical references in the Qur'an with suggested solutions for various problems and issues.

Hardcover Edition, 2011, by Dan Gibson

ISBN: 978-0-9733642-8-6

Dan Gibson believes that four times in the history of the Arabian Peninsula, the Arabs united and burst forth from the deserts conquering other nations. The first is described in the Qur'an as the people of 'Ad. The Bible describes these as an alliance of tribes led by the Edomites, living in the land of 'Uz. The Egyptians described them as Hyksos, or shepherd kings who invaded Egypt. By combining these three identities together, Gibson sees evidence of this powerful alliance from archeological remains in Egypt, Palestine, Iraq, Jordan, Yemen and Oman. In the end the Egyptians crush the alliance and the remaining tribes disperse and become small, isolated tribes in the des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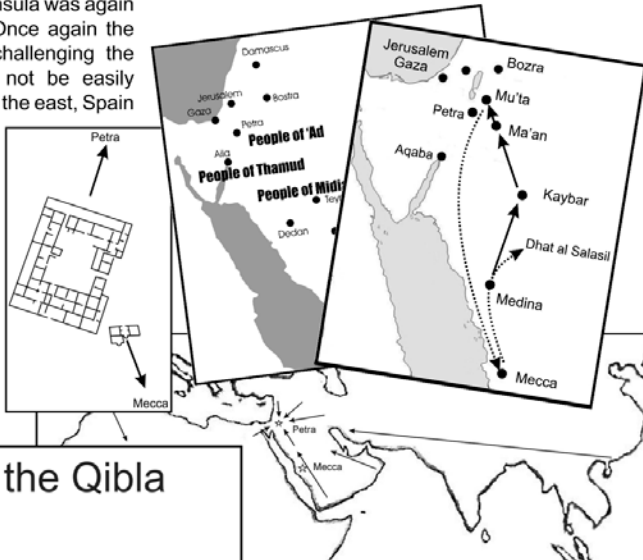
Eventually Arabia unites again, this tim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dianites. The Qur'anic and the Biblical records clearly remember when the tribes united under Midianite leadership and challenged the nations outside of the peninsula. This time they meet their defeat in the Levant.

Many centuries later, the tribes of Ishmael take leadership, this time under the direction of the Nabataean tribe, descendants of the eldest son of Ishmael. This empire would be different, for the backbone of this empire was trade not military force. The Qur'an calls them the people of Thamud, meaning "after 'Ud". The Jews called them Nabataeans, and the Romans simply refer to them as Arabs. In 106 AD the northern part of their kingdom was absorbed into the Roman Empire and eventually they faded from view.

It was not until 600 AD that the Arabian Peninsula was again united, this time under the flag of Islam. Once again the tribes of Arabia burst from the deserts challenging the surrounding nations. This time they will not be easily defeated, and their armies march to China in the east, Spain in the west, and Vienna in the north. Over....

Discover amazing facts about the founding of Islam!

**Easy to read
Fully referenced
Highly illustrated**



The Changing of the Qib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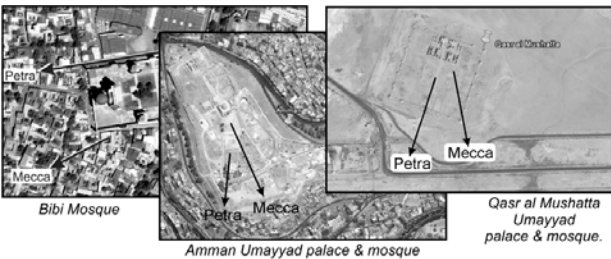
100% point to Petra
(of those mosques we could determine)

12 % point to Petra
50 % point to Mecca
38 % point parallel

100 % point to Mec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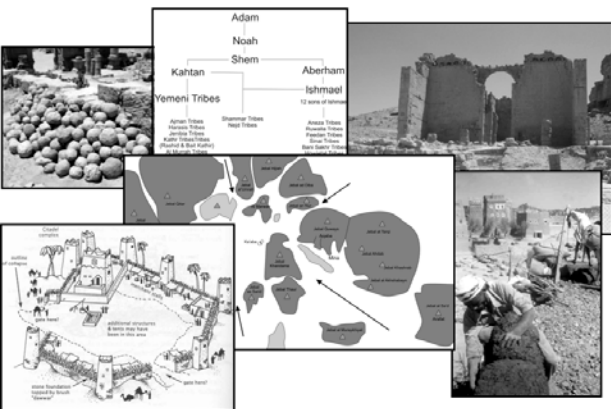
Petra	Confusion	Mecca
1 AH - 107 AH 622 AD - 725 AD	107 AH - 207 AH 725 AD - 822 AD	207 AH - Present 822AD - Present
2nd Civil War	Abbasid rule begins	

Hard cover, library binding.



But there is more to this book than a study of the four times when the Arabs demonstrated their greatness. This book also examines the geographical references in the Qur'an cross-referencing them with historical locations. The surprise comes when Gibson examines the Holy City of Islam, known as Mecca. Here Gibson finds evidence that the original Holy City was in northern Arabia in the city of Petra. He theorizes that during an Islamic civil war one hundred years after Muhammad, the Ka'ba was destroyed and the Black Rock was moved to its present location. Gibson examines archae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evidence that support this theory and addresses many questions and objections that readers may have.

This book contains many references, as well as some useful appendices including a 32 page time line of Islamic history from 550 AD - 1095 AD, and a 20 page annotated selected bibliography of early Islamic sources in chronological order from 724 AD - 1100 AD plus a list of many early Qur'anic manuscripts. Over 470 pages, with index.



CONTENTS

Abbreviations
Acknowledgments
Introduction

PART I Geographical Background to Arabia

Chapter 1 Geographical Locations in the Qur'an
Chapter 2 The Founding of the Nations

PART II The People of 'Ad

Chapter 3 The People of 'Ad
Chapter 4 'Ad in the Bible
Chapter 5 The Kings of 'Ad
Chapter 6 'Ad and the Book of Job
Chapter 7 'Ad and the Pharaohs
Chapter 8 'Ad, Edom and the Hyksos

PART III The People of Midian

Chapter 9 The People of Midian

PART IV The People of Thamud

Chapter 10 The Kingdom of Thamud
Chapter 11 Thamudic Trade Routes
Chapter 12 The Thamudic Golden Age
Chapter 13 The Thamudic Kingdom Crumbles

Part V Pre-Islamic Arabia

Chapter 14 The Tribes of Arabia
Chapter 15 The City of Medina

Part VI Islam's Holy City

Chapter 16 The Holy City
Chapter 17 The Qibla
Chapter 18 Archeological Evidence
Chapter 19 Literary Evidence
Chapter 20 Historical Evidence
Chapter 21 Navigation and Pre-Islamic Poetry
Chapter 22 The Abbāsīd Writers
Chapter 23 The Case for Aqaba and Al-Aqsa
Chapter 24 Qur'anic Geography

Part VII Appendices

A Timeline of Early Islamic History
B Annotated Bibliography of Early Islamic Sources
C Early Qur'ans
D Bibliography of Secondary Sources
E Index



Independent Scholars Press
<http://indipress.ca>
 Box 423, 10688 King George Blvd,
 Surrey B.C. V3T 5B6, Canada

Hard cover, library binding.
<http://indipress.ca/catalog>